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p>주님, 점점 다가오는 봄의 기운에 마음이 설렙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고 나뭇가지에 돌아나는 작은 새싹은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따라 본분을 다하는 자연만물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밝고 가벼운 몸짓으로 주님의 순리를 따르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감정과 부질없는 상념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영혼을 봄바람처럼, 봄의 새싹처럼 밝고 가볍게 해주십시오.</p> <p>주님, 지구 곳곳에서 큰 지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지구적 재앙을 통해 인류애(人類愛)라는 반석을 찾게 하시고 그 위에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33	인도자
♠ 교 독 문	126. 사순절(3)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권사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44. 예수 나를 위하여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3:3-15	배동준 학생
	II. 요10:7-15	박범희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있을 수 없는 일	김재흥 목사
	II. 도둑과 목자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양 430(통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보고도 뒷걸음질쳤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뒤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남을 힘껏 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2남, 3·4여선교회 주관 예배	빌립보서 공부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박소진 선생	전수정 학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정원석 집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하정석 김대근 이명희 문영혜 오자영
	헌금위원	윤석철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차 없이 보낸 8개월

“아저씨 이 차 계속 타다가 잘못하면 갑자기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 타고 장거리는 다니지 마세요. 라디에이터그릴이 다 녹슬고 있어서 갑자기 열 받을 수 있어요. 타실 때는 온도 잘 보시구요.”

최소한 앞으로 10만km를 더 타서 30만km 신기록을 찍어보겠다는 나의 바람을 짓뭇개는 자동차 정비사의 말을 뒤로하고 ‘아니 도대체 멀쩡하기만 한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라디에이터그릴을 확 바꿔버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차 값을 넘어버리는 부품 값을 지불하기엔 난 너무 소심했다.

계속되는 고민 끝에 보험 만기일이 도래해서야 ‘일단 폐차하고 생각하자’란 마음으로 폐차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다지 의도하지 않았던 차 없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의외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신경 쓸 많은 일들이 사라졌다. ‘어디 주유소가 정품정량에 싼 주유소지? 이번 자동차세는 얼마가 나올까? 보험은 어디서 들어야 싸지? 차에서 좋은 냄새 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연료필터 바꾸려면 얼마나 더 타야 할까? 다음번 타이어는 어디서 교체하는 게 좋을까? 연비를 높이기 위한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형님네 와이퍼는 잘도 닦이던데 나도 이번에 보 슈 와이퍼로 바꿔야지. 바퀴 구를 때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또 뭘 문제가 있는 거 아냐? 더 좋은 자동차 정비소는 없을까?’

이런 많은 염려와 신경 쓰는 일들이 일순간에 확 없어져 버렸다. ‘내가 차를 타면서 이렇게나 많은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나 작은 것들에 골몰했구나!’ 차를 없애고 보니, 차에 붙어 있던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불가에서 말하는 번뇌를 벗어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일까?

더불어 몇 가지 옵션이 더 달려 왔다. 우선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독서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나로서는 지하철은 일종의 이동도서관 구실을 충실히 해주었다. 엄청난 소음은 오히려 책읽기에 고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더불어 퇴근길에 훌륭한 잠자리 구실도 해주었다. 퇴근길 10분의 잠은 그야말로 꿀잠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상당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퇴근길에 앉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만 익힌다면 대중교통은 더 빠르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되고 오히려 체력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가끔 하면 재미나지만 매일 하게 되면 일종의 노동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다른 지방이나 경기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잘 정비된 도시라는 것을 지난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체험하게 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적절히 이용하면 대부분의 장소에 늦지 않고 당도할 수 있었다. 특별히 러시아워엔 자동차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택시도 아주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되었다. 과거엔 택시를 거의 타지 않았는데 이젠 맘 편히 이용한다. 아무리 이용해 봐도 1년 자동차 보험료를 초과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택시 기사분들 예게도 좋은 일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소득이 생긴다. 몇 가지를 기술해 보면,

1년 자동차 보험료 - 약 50만원

자동차 감가상각비 - 약 150~200만원 (10년 타기 기준)

자동차 검사료, 정비료 등 - 약 20~30만원

자동차 소모품 (오일, 타이어, 필터, 와이퍼 등) - 약 15만원 내외

주유비 (1년 5천km 기준) - 약 500리터 80만원

도합 1년 절약액 약 315만원 ~ 375만원

또 하나의 덩이 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환경실천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차만 없었을 뿐인데 난 CO² 감소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차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관심이 간다. 사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다음에는 이 차를 몰아볼 거야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그 자원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차를 사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울 생활에서는 말이다.

산을 오르며

정연복

우람한 산 앞에 서면
나의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

겸허하게 살자고 다짐하면서도
가끔은 교만이 고개를 치켜드는

아직도 많이 설익은 나의 인생살이를
산은 말없이 가르쳐 주지

높음과 깊음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

깊숙이 내려앉기 위해
가파르게 오르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말없이 산은 내게 이야기하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준우 우순덕 강미선 광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김일랑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방민배근수 김금순
 임고운 조문규 진정숙 최종원 김정애 전해리 방준 광다빈 강순배
 박용진 김용원 홍복선 김정애 이광용 형인순

월정헌금:

김수진 김승현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동권
 이소순 이은자 이인웅 오승경 이재구 황선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이광섭 이수정 배재경 김현주 김지윤 임영 정경례 나승철 서지은
 이현순 무명2

감사헌금:

서정순 박범희 전해리 김지호 강순배 박규석 조관행 홍선희 김인걸
 문영혜 김준호 윤주필 윤돈희 김준우 전성오 한완식 임정자 정경례
 장미라 윤성종 김윤정 김용진 박효선 김정애 무명

녹색꿈헌금: 이나래 최경미

생일헌금: 유혜경 김지윤 백묘현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김정선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소순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송의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교회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십시오.
2. **월례회** : 오늘 오후 집회는 2남, 3·4여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교사교육** : 교회학교 1분기 교사교육이 오후 3시 10분에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5. **수요집회** : 3월 수요집회는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장영숙 전도사가 강의합니다.
6. **성서학당** : 이번 주 11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봄학기 성서학당을 개강합니다. 1교시는 김재흥 목사가, 2교시는 김기석 목사가 강의합니다.
7. **세례입교교육** :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과 입교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청파산악회** : 이번 주 13일(토) 예봉산을 오릅니다. 운길산역(중앙선)에서 오전 10시에 만납니다.
9. **신앙실천** : 교회에 새교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낯선 이를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해보세요.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다음 주 : 베들레헴 속)

* 설거지 봉사 : 이국노 김민화 이건설 (다음 주 : 손성윤 고미진 정희은)

* 새교우 : 오재형(5남) 리봄(청년부) 신진식(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